



# 지역 소식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신년 메시지

##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일에 참여합시다”



*Koichi Aoyagi*

고이치 아오야기



*Michael Ringwood*

마이클 티 링우드



*Scott D. Whiting*

스코트 디 와이팅

어떤 문화권에서든 새해 달력을 거는 일은 삶에 변화를 주겠다고 다짐하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약점을 극복하고 재능과 강점을 개발하며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삶의 변화들 말입니다. 달력을 바꾸어 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결심과 목표를 세우는 이유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발전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발전 정도를 측정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것이 삶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더 좋은 성과를 얻도록 독려하는 건전한 관습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매년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및 가족 목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달성할 한해 목표를 함께 세우기도 합니다. 다 같이 모이기 전에, 우리는 가족 모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해에 무엇을 달성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새해 첫 가정의 밤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나눌 수 있게 준

비하라고 이야기해 둡니다. 우리는 각자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한 해 동안 그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합니다. 제가 목표를 전부 달성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다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로부터 모든 회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구원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주어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사업에는 “회원 선교 사업과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의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그리고 복음 교육이 포함된다”고 배웠습니다. 올해 제가 세운 목표는 이것입니다. 제 입을 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 보도록 권유하며, 교회에 발길을 끊은 분들을 찾아내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의 성공 여부는 제가 권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로 가늠될 뿐 제가 권유한 분들이 그것에 응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간구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로 인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제 권유를 거절한 다 해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주님께 나아오라고 권유하는 것이 참된 예수님의 교회 회원으로서 제가 할 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낙담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압니다. 저는 조상들을 찾아 그분들이 성전에서 구원 의식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다짐의 일부로서 여러분도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일에 참여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제껏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하여 담대해지고 이 교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 위대한 사업에 동참할 때 주어지는 약속된 축복들을 받으십시오. 저는 우리가 이 위대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한다면 해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시지 않겠습니까?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

## 사랑하는

## 한국 성도 여러분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쿠엔틴 엘 쿡 장로



던 엠 데이비스 감독



린다 케이 버튼 자매

# 가족을 강화 하십시오

한국 스테이크 대회의 특별한 말씀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한국 성도들에 대한 연사들의 권고와 사랑이 계속해서 기억되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참석했을 때 개인에게 임했던 성신의 가르침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소망해 본다.

**20**13년 11월 18일, 한국 성도들을 위한 특별 스테이크 대회가 각 스테이크 및 지방부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대회는 위성 방송 시청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본부의 특별 연사들이 한국의 후기 성도들을 위해 말씀했다.

연사로는 본부 감리 감독단 2보좌인 던 엠 데이비스 감독, 본부 상호부 조회 회장 린다 케이 버튼 자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와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가 각각 말씀했다.

한국 성도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말씀이었던 만큼, 한국의 문화나 특성, 한국에 교회가 헌납된 역사 등에 대한 언급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비, 저출산 현상, 후기 성도 청소년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받고 있는 힘든 영향력과 유혹 등, 한국 성도들이 당면한 도전 과제들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이 바쁘고 분주하며, 높은 교육열 속에 허덕이는 한국의 가족들에게 연사들이 권고한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버튼 자매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선교부 회장 부부로서 봉사했던 경험을 나누었다. 김치를 정말 좋아하게 될 때까지 일화를 이야기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개종이라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하나의 변화 과정이라고 비유적으로

로 설명했다. 또한 깊이 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행사해야 한다며, 행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던 엠 데이비스 감독은 자녀들이 개종하도록 돕고 간증을 강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누었는데, 그 방법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의로운 원리를 배운다면 한국의 자녀들이 의롭게 자라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복음 안에서 가족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그는 미국 유명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저명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는데, 현재 행복의 상태와 어린 시절의 가족 행복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론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과 성공적인 성인을 만들어주는 활동은, 교회에서 강조하는 가정의 밤, 가족 기도, 사랑의 표현, 가족과의 단합, 가족 전통 등과 대동소이(大同小異)했다.

마지막 연사였던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개별적으로나 가정에서 우리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계명에 대해 말씀하며, 그러한 계명은 이 생에서는 평안을,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가져오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도와 가정의 밤, 가족 평의회가 우리 가족을 함께 묶어주고 구속주라는 반석에 닦을 내리도록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사들은 구체적인 경험과 간증으로 한국 성도들을 권면하였으며, 가족이 강화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권고사항도 잊지 않았다. 기도, 가정의 밤,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직접 행동하는 것 등 연사들이 말한 권고 사항 몇 가지를 이곳에 싣는다.

## 기도

헤일즈 장로의 말씀에 의하면, 매일 하는 기도에는 적어도 세 가지 종류가 포함되는데, 그것은 개인 기도, 동반자와의 기도, 가족 기도이다. 우리는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고, 개인의 약점을 고백하며, 용서와 인도를 구한 후, 가족이나 부름, 장래의 문제처럼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린다. 헤일즈 장로는 기도 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영이 우리를 가르치고 영감을 줄 것이라고 전하며,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성스럽고 진지하게 다루었다.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제3 니파이 18:21)

데이비스 감독이 이 구절을 인용하며,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으로써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자녀들이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 가정의 밤

아버지는 신권 소유자로서 가정을 이끄는 지도자이며, 그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가정의 밤을 하는 것이라고 헤일즈 장로는 말씀했다. 가정의 밤은 자녀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고 복음을 공부하며, 침례받을 준비를 시키는 시간이다. 성찬의 성스러움과 의미에 대해 가르치며, 성전에 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배우고, 십일조의 법을 포함한 여러 계명을 가르치기에 이상적인 시간이다.

쿡 장로의 가족은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는데, 그곳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후기 성도 청소년이 매우 적었다. 자녀들이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것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

라 걱정한 그의 가족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가정의 밤에서 미리 상의하곤 했다.

“복음 교리와 원리를 알고 있다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쿡 장로와 마찬가지로 데이비스 감독도 자신이 직접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가정의 밤에 대해 권고했다.

데이비스 감독의 가정 또한, 자녀들이 어릴 때 가정의 밤이 불완전하게 진행되기도 했지만, 부부의 노력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셨고 자녀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은 가정의 밤을 충실히 갖는다면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강화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 우리 청소년들의 뜻뜻하고 발전하는 간증을 다듬고 키우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경험과 지식, 간증을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가지고 공공연히 이야기할 때, 자녀들은 말씀이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장래에 힘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의 영향을 인정하며 기뻐합니다. ……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느낌을 나누는 것은 우리 자녀들 생활에서 아주 필수적인 영향력입니다.”

## 가족 평의회

헤일즈 장로는 가족 평의회에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설명했다. 가족 평의회는 가족 각자의 느낌과 생각, 의견을 듣는 시간이며,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 얘기하고 그들의

숨은 은사와 재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자녀 중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는 그들이 가정의 밤에 참여하도록 계속 권유하고, 가족 평의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권유해야 한다.

“그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들이 부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문 앞에 나타날 때마다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문을 결코 닫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마음의 문을 결코 닫지 마십시오.”

## 행위로서 모범을 보임

데이비스 감독은 부모들이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어떤 지식을 직접 전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가 교회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 자녀들이 말씀하거나 경전을 읽도록 돕는 것도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점을 유념하도록 했다.

또한, 사랑과 신앙, 간증을 담아 자녀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나, 부모나 조상으로서 일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하며, 부모의 편지와 일지를 읽을 때 자녀들은 부모가 느낀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사랑을 느끼며, 간증을 강화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쿡 장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것도 곧 가족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러분의 생활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울 시간을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며, 개인과 가족으로서 경전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하는 등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할 것을 권유했다. ■



# 인천 스테이크의 새로운 집회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위치와 건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대지에서, 새로운 인천 집회소의 기공식이 있었다. 이 집회소의 부지는 인천 시청과 교육청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인천 교육청과 집회소의 부지 사이에는 아름다운 인천 중앙공원의 조각원 지구가 자리잡고 있다.

인천 스테이크는 1967년 허채 회장의 집에서 열린 첫 예배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1981년 11월 12일, 칠십인 정원회의 로이든 지 데릭 장로의 감리 하에 열린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에서

인천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7번째 스테이크였다. 인천 스테이크 회장에 허채 형제, 제1보좌에 홍장석 형제, 제2보좌에 김창록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초대 스테이크 회장 허채 형제가 봉사한 후, 홍유남 형제, 박동화 형제, 길영권 형제, 그리고 현재의 박인수 형제가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해왔다. 그리고 이제, 인천 스테이크는 오랜 역사를 지닌 건설한 시온의 스테이크로 발전했다.

연사 중 한 명이었던 박인수 회장은 인천 스테이크 신앙의 선조들을 회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까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새로운 집회소의 기공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교리와 성약 109:8)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감리한 김창호 장로는 편리한 위치와 아름다운 디자인을 칭찬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아름다운 건물의 의미를 영적으로 되새기길 요청했다.

“건물과 지역의 아름다움은 감사한 일이지만, 장소가 우리의 신앙을



# 첫 삽을 뜨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성약을 지키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을 지닌 주님의 백성이 됩시다.”

기공식에 이어 리본 커팅식과 시삽식이 있었다. 시삽식에는 특히 지도자와 회원들이 모두 참여하며 인천 스테이크의 도약을 함께 꿈꾸었다.

이 기공식에는 인천 스테이크의 여러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인천 스테이크가 초석을 다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스테이크 회장 및 신권 지도자, 그리고 회원들이 자리에 함께하여 기공식을 축하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나누었다. 부지 관리와 건축을 담당하는 한국 관리 본부와 업체 관계자들이 기공식에 참석하여, 인천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새로운 건물과 일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새로운 인천 집회소는 2015년 1월 완공 예정이다. ■

## 2014 지역 복지 강조사항

1

# 주님의 창고: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위험천만한 시대를 헤쳐나감

몰몬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이야기 중에서, 독재적인 통치자 아멜리카이아가 일으키고 뒤이어 그의 동생 엠모론이 계속한 니파이 백성과 레이맨 백성 사이의 11년에 걸친 전쟁만큼 많은 지면을 차지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전쟁 기사는 몰몬경에서 장장 16장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니파이 백성에게는 위험천만한 시기였는데, 이는 그들의 자유와 권리, 종교, 나아가 가족과 목숨까지도 공격받아 곤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헤쳐나아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충실하게 준비하고 방비가 약한 성들을 강화하며, 주님의 힘을 입어 싸우기 위해 단합하는 노력이 핵심 방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가치를 높이 들고 백성들에게 “주의 힘 안에 나아[올]!”<sup>1</sup> 것을 호소하는 용맹한 모로나이 총대장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그 허리에 그들의 갑옷을 두르고 함께 달려와” 주님께 충실하겠다고 성약하는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적을 이기려면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 하나로 뭉치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하는 일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인도하고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 “복지 생활”과 봉사를 강조하는 이 시대 선지자들의 당부

앞서 언급한 니파이 백성의 경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후기라는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sup>2</sup> 우리는 레이맨 군대가 아니라 개인주의 성향의 급증,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자립의 약화, 다양한 형태의 중독, 남용, 이 시대의 고질병 등과 같은 공격으로 궁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중에도 재정적, 신체적, 정서적, 영적 곤경에 처한 사람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연로한 분들과 장애인 질병은 물론이요 가족과 기타 대인관계에서의 장애, 교육 및 취업 관련 사항, 가족의 재정적 압박에 처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을 비롯하여 서로 보살피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경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들었던 옛적의 모로나이 총대장처럼, 이 시대의 선지자들 또한, 우리의 전장에서 가치, 즉, 복지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지 생활”, 즉 각 사람이 주님의 방법으로 매일 복음 원리를 따르고 적용하는 생활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세상적인 필요사항에 대한 재정적 해결책이나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를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자립 상태를 높이고, 곤궁에 처한 사람을 더 잘 보살피고, 자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sup>3</sup> 복지 생활과 봉사는 “우리 교리의 중심이자 우리 종교의 본질”이며<sup>4</sup>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지 생활은 우리 서로를 강화시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합니다. 봉사 요청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누구나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힘 안에 나아와” 봉사합시다.

### 주님의 방법: 복지 생활, 봉사, 일에 대한 모형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복지 생활과 봉사와 일에는 자립하겠다는 각오를 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필요사항을 충족하려면 우리가 지닌 능력과 자원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으로 가족, 지역사회의 자원, 현지 교회 지도자와 와드 평의회가 나서서 돕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복지부와 지역 자립부,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와 같은 교회 전반적인 자원을 가동하여 신권 지도자의 지시 아래 추가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의 목적은 자립을 위한 우리 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을 뒷받침하고 힘을 북돋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겪는 어려움은 그 내용과 본질이 천차만별이지만,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이 분명하게 가르치셨듯이, 복지와 관련된 영감 받은 원리는 한결같이 이렇습니다. “함께 협의하고, 모든 자원을 활용하며, 성신의 영감을 구하고, 주님께 확증을 구한 뒤 [우리]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러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드리건대,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는 일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sup>5</sup>

### 복지를 위한 마음으로 봉사합시다

올 한 해 동안 지역 복지부, 지역 자립부,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로 구성된 합동팀에서는 주님의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협동 모델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제시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은 우리 개인과 교회 전체가 복천년과 우리 구원을 위해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시들되 -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디미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sup>6</sup>

신권 계통에서 지도자였던 힐라맨과 현세적인 면에서 지도자였던 모로나이는 전시에 협력했습니다. 북아시아 지역의 복지 사안에 전념하여 일하는 우리들은 모든 교회 회원 여러분께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여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축복하거나, 지역 복지부 또는 곧 개설될 자립 센터,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에서 교회 자원봉사자 또는 교회 봉사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전문적 재능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뿐 아니라 모든 회원이 자신의 능력과 소망을 신권 지도자에게 알려 주고 복지를 위한 마음으로 봉사할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해 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휴면 중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시간과 재능을 쏟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살아 숨 쉬며 변성하는 주님의 창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시다. ■

### 주

1. 알마서 46:19~21.
2. 디모데후서 3:1.
3.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십시오”, 리야호나, 2011년 11월호.
4. 같은 책.
5. 같은 책.
6. 모로나이서 7:46~47.

## 새로운 기술의 활용 ①

# “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 페이지

2014년에 연재되는 이 기사는 인터넷 웹사이트, 교회에서 제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소셜 미디어 등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기술들을 안내한다.

**지**난 2013년 6월 23일,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메리어트 센터에서 ‘구원 사업’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지도자 모임이 방송되었다. 이 방송에서는 구도자와 회원 선교 사업과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의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그리고 복음 교육을 위한 통합된 노력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선교사의 페이스북 사용 등 인터넷을 사용한 선교 사업,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일하는 것, 평일에 집회소에 온 방문자를 안내하는 것 등 새로운 구원 사업 방식들이 발표되었다.

이 모임이 방송된 후, 교회 홈페이지(lds.org)에는 ‘구원 사업’이라는 새로운 페이지가 생성되었다. 이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 구원 사업 페이지 주소(사진 설명 참조)를 직접 입력하거나, 교회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왼쪽 하단에 있는 “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를 클릭할 수도 있다.

이 웹사이트는 글이나 사진보다는 동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세계 지도자 모임 방송 이외에도 구원 사업과 관련된 총 30여 개의 훈련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각 동영상이 원리나 교리를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교리에 기초하여 실제 구원 사업에 힘쓰고 있는 회원들의 인터뷰와 간증을 통해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이다.

### 기본 메뉴 소개

1) 회원과 선교사: 선교 사업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우리는 하나로써 구원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비전을 강조한다.

2) 와드 평의회와 와드 선교 책임자: 구원 사업에서 감독, 와드 선교 책임자, 선교사, 와드 평의회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면서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어떻게 돕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3) 신권 지도자: 스테이크 회장단, 감독단, 선교부 회장단, 고등 평의회,

“여러분은 놀라운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 ..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발전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기술은 위협이 되기보다는 영적인 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30쪽

대제사 그룹, 장로 정원회 등 신권 지도자들이 이 구원 사업에서 신권 열쇠를 행사하는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권유한다.

4) 특별 방송: 지난 2013년 6월 23일(한국은 6월 30일) 위성으로 방송되었던 ‘전 세계 지도자 모임: 구원 사업’의 동영상은 볼 수 있다. ■

사진: 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 페이지 캡처  
<http://www.lds.org/training/wwlt/2013/hastening/members-and-missionaries?lang=kor>



# ‘선교사 메신저(The Missionary Messenger)’로 본 한국 초기 교회 역사 이야기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이 기사는 교회와 한민족과의 관계를 김호직 박사의 침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탐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 역사와 관련하여 당시 발간물로서는 유일한 초기 선교부 기록물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 초기 역사를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1958년 1월 귀환한 게일 이 카 장로가 지난달 소개한 바 있는 북극동 선교부 월간지인 “선교사 메신저(The Missionary Messenger)” 1958년 2월호에 기고한 4페이지에 달하는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미국 군인으로 한국에 파병된 많은 병사들 중에는 귀환 선교사는 물론 예비 선교사들이 꽤 여럿 있었다. 점차 공산주의 세력이 북쪽으로 밀려나면서, 흩어져 한국에 장기 주둔하게 된 병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께 성찬을 드리고자 자체적으로 여기저기 모이게 되었다. 바로 이런 모임에, 의지할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의지할 곳을 찾고 있던 한국 사람들이 여럿 참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모임임에도, 한국인 참석자가 금세 미국인을 넘어섰다. 대개가 이런 식으로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은 교회에 가입하고 싶어했다.

이런 연유로, 한국에 선교사가 처음 파견되었을 때 국내에는 이미 66명의 한국인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다.

……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는 곧 교회에 대한 많은 악의적인 이야기가 유포되었고, 일부 목사들은 우리를 한국에서 가장 이단적인 종교로 깎아내렸다. 하지만 이는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기보다 더 많은 구도자를 양산하는 역할을 하였고, 실제로 토론(cottage meeting)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야 할 정도였다. …… 사업은 지속해서 발전했다. 마침내 부산 지부가 문을 열었고, 선교사들이 두 도시에 배치되었다. …… 마침내 교회가 서울에 땅을 구매할 수 있었고, 1956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유락동 소재 교회 건물에서 첫 모임을 하게 되었다. 일백하고도 삼십팔 명이 이 개막 모임에 참석하였다. ……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교

재부터 번역하고 인쇄해야 한다. 더 많은 소책자가 번역되어야 하며, 하루 바빠 출판되어야 한다. 장(세천) 형제가 곧 물문경 번역을 시작할 것이다. 문을 열어야 할 새로운 도시들이 아직도 지천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가져올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고대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돌아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요 주님의 인도를 확인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한국 땅에서의 복음의 불길은 이미 그 빛을 본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



## 여러분의 기증을 받습니다!

**교**회 역사 위원회는 한국 교회 초기 역사를 탐구하는데 사료적 가치가 있는 출판물을 수집 보존 및 자료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1955년에서 1962년 사이 북극동 선교부에서 출간한 The Missionary Messenger와 1962년 이후 한국 선교부에서 출간한 The Whitefield를 비롯하여, 선교부/스테이크/개인출판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역사 위원회 서희철  
02)928-0033

리아호나 담당자 한경아  
0)2232-1441 (내선 번호 564)





# 복음과 우리 가족이 가족 인봉을 받던 날

신봉 와드 임진숙 자매

**나**는 어릴 때, 천주교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를 따라 성당이나 교회에 가곤 했다. 그 영향 때문이었는지, 초등학교 시절 내가 가장 즐겨 읽던 책은 구약전서 이야기라는 책의 전집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가 다니던 어떤 교회에 다녀와 그것을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얼마 후 어머니는 결혼 전에 다니셨다는 교회의 선교사를 나와 내 동생에게 소개해 주셨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였다. 결혼 후 교회를 가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참된 교회를 알려주고 싶으셨다고 한다.

나와 내 동생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고, 1999년에 함께 침례받았다. 어머니는 나와 내 동생을 교회로 데려가셨고 항상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셨다. 우리 세 모녀는 복음을 사랑하게 되었다.

세 모녀가 교회에 갈 때 항상 차로 데려다 주시던 아버지는 여전히 교회 회원이 아니셨다. 선교사와의 만남이나 가정의 밤 참여를 거부하실때면 나는 무척 실망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길 권유하셨고 나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는 마침내 준비되셨고 침례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분이 정한 시각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방법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간증으로 얻게 되었다. 더불어, 어떤 축복은 때때로 생각만큼 빨리 오지 않으며, 인내가 요구되기도 한다는 것을 느꼈다.

침례와 함께 받은 더 큰 축복은, 우리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된 것이다. 가족 인봉을 받던 날, 나는 정말 특별한 기분을 들었고 가족이 함께 성전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낄 수 있었다. 요즘은 결혼하여 가족을 꾸리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에 비해 낮게 취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큰 기쁨과 축복(교리와 성약 130:21)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하늘 가족에 속해 있고,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



## 기사와 제보를 모집합니다.

'복음과 가족'이라는 기사는 2014년 동안 매월 연재될 예정입니다. 복음을 통해 가족이 받은 축복을 느꼈거나, 가정생활을 통해 복음 원리를 깨닫게 된 사례 등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중독이나 실수 등, 심각한 내용이거나 요청받는 경우 '익명'으로 기사가 나가게 됩니다.

오른쪽 보기와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으신 가족은 다음의 연락처로 기사 및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kah\_liahona@daum.net 또는 02) 2232-1441 (내선번호 564번)

### 보기

- 가족과 함께 복음 원리를 실천함: 가족 역사 사업, 선교 사업, 비축, 가정의 밤, 가족 평의회, 아버지의 신권 접견, 가족 기도 등
-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함: 부부, 부모 자녀 관계 등
- 중독을 극복함: 외설물 및 게임 중독을 극복함
- 상황적 어려움을 극복함 (사망,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 저활동이었던 가족 구성원의 재활동 등

## 번스 장로 부부



**번**스 장로는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는 1974년에서 1976년까지 한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그것이 인생에서 특별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국말로 서툴게 인사하면서도 계속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는 “부부 선교사로서 봉사하길 원했을 때에도 한국으로 부름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멋지고도 영적인 사건입니다.”라고 말한다. 번스 장로는 ‘뉴호라이즌’의 멤버로서 1975년부터 1976년까지 활동하기도 했는데, ‘뉴호라이즌’은 교회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1974년에 구성된 한국 선교부 선교사들의 음악 그룹이다.

아내인 로리 번스 자매는 남편 번스 장로의 첫 번째 선교 사업 지역인 한국에서 봉사하는 기회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냈다. “남편은 그가 한국인들과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처럼 저도 한국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홍보 선교사로서 봉사하기 시작하며, 이들 부부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 한국의 공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촉진하는 것, 둘째, 교회 회원들에게 교회의 성장과 힘 및 긍정적인 영향력을 알려주는 것, 셋째, 교회의 성장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번스 장로는 금융업에 오랜 기간 종사했으며, 더불어 여러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서 경제학과 통계를 가르쳤다. 아내인 로리 번스 자매는 34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으며, 수학과 교육공학 분야를 공부했다. 번스 장로 부부에게는 2남 5녀의 자녀와 8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 ■

## 최남용 장로 부부



**건**강 문제로 부부 선교사의 꿈을 접을 뻔했던 최 장로 부부는 복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다고 말한다. 아내인 정근자 자매는 봉사하며 얻은 기쁨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을 만날 때,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봉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마음이 정화되고 늘 즐겁습니다. 다른 회원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전해지길 바라고, 함께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최 장로는,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회원들과 자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소망을 전했다. 왜냐하면, 복지 선교사의 사명은 회원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백성들이 한 마음 한뜻이 되어 가난한 자가 없는 ‘시온’에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실현되길 꿈꾼다.

“남을 도우려면 자신이 먼저 자립해야 하며, 남을 돕기 위해 자립하려고 하면 더 쉽게 자립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회원을 도울 때, 결국 우리 자신은 더욱 행복해집니다.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적 자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회원이 많은 곳입니다.”

최남용 장로는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목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아내인 정근자 자매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최 장로는 광주 스테이크에서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로 봉사했으며 정 자매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한 바 있다. ■

## 성전에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서울 성전의 새로운 회장단으로, 회장에 이용환 형제, 1보좌에 박동화 형제, 2보좌에 이우영 형제가 부름받았다. 이 회장은 서울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이용환 회장의 간증을 소개한다.

**우** 리 부부는 1987년부터 성전 봉사자로 부름을 받아 매주 한 번 성전에 오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고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언젠가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참다운 교회와 경진, 현대의 선지자, 그리고 성전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으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우리 한국 서울 성전은 봉사하시는 분이나 참여자나 모든 분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되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전 선교사들이나 의식 봉사자들이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요 14:27)” 평안을 느끼고 나누어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성전에 정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생활을 조직하여 여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형편이 허락하는 한 성전에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왼쪽부터: 이우영 회장, 임정희 자매, 이용환 회장, 한인자 자매, 박동화 회장, 정행운아 자매

## 침례를 통해 시작된 인생의 제2막

미국 카노가파크 스테이크 산페르난도 한인 지부의 차종환 형제가, 2013년 제7회 세계 한인의 날 '세계 한인 교류 협력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다음은 그의 편지를 정리한 것이다.

**대** 학생 시절 김호직 박사님을 만나 1957년 침례와 확인을 받은 뒤, 제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튼튼한 몸과 거친 성품으로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술도 즐겼지만, 침례 이후 복음을 배워가며 사물에 대한 시야가 넓어져 갔고, 지혜의 말씀에 따라 건강의 율법을 지켜 건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 서울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지방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중, 우리 부부는 성전에서 인봉을 받기 위해 다른 5쌍의 부부와 함께 하와이 성전에 방문했습니다. 연구를 위해 미국에 잠시 머무르던 도중, 민주화 운동으로 제가 대한민국 제1호 해직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저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도움으로 하와이를 떠나 이곳 엘에이(LA)에 정착했습니다. 한인 후기 성도들이 유에스씨(USC) 대학 내 조그마한 교실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정을 나누던 기억을 떠올릴 때면 아련한 추억에 잠깁니다.

타의에 의해 귀국과 교직을 포기해야만 했던 시절, 좌절과 원망, 슬픔으로 한이 맺혀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과거 사 정리법으로 해직 교수라는 오명을 벗고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한인 학생과 교육 공로자에게 장학금과 상을 수여하며 나뉠의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가주 한인 공보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산페르난도 한인 지부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운 시절을 회상해보는 순간들이 참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속하게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지침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온 이 귀한 시간은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진주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한 결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선지자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다 떨어져 가는 선교사의 신발

연수 와드 위한갑 형제

2009년, 영어와 복음을 가르치는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날 가르치던 선교사의 신발에 눈이 갔다. 그는 다 떨어져 가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처음에는 영어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접하게 되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으나, 그들의 언행과, 복음을 전하며 다 닳아버린 선교사의 구두에서 나는 신뢰를 느꼈다. 서투른 한국말에도, 한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고 있었다. 참신앙이 이 교회에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교사와 계속 만나면서, 내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불만을 품기 보다는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선교사님은 내게 교리와 성약 36편의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라는 교리와 성약 36편의 구절을 나누었다. 그 구절을 들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들어와 앉아 계신 것 같은 깊은 바다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느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고, 특히 나의 아내는 20여 년을 천주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개종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2012년 가을에 침례를 받았고, 나의 아내는 개종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의 결과로 2013년 여름에 침례를 받았다. 지금은 자녀들도 초등학교와 청남에서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내 사무실에는 신발 사진이 하나 걸려있다. 나에게 복음을 처음 가르쳐준 선교사가 귀환하기 직전, 내가 찍은 그의 신발 사진이다. 늘 이 사진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곤 한다.



왼쪽: 위한갑 형제와 가족  
오른쪽: 위 형제의 사무실에 걸려 있는 선교사의 신발 사진

와드 선교사, 장로 정원회 1보좌, 와드 서기 등으로 봉사하며, 나만의 작은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소망을 키우고 있다. 그 계획은, 몇 년 내로 침례 생일을 기념하며, 날 가르치고 침례준 선교사들과 재회하고, 함께 성전에 가고 우정을 나누는 것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계속해서 봉사의 기쁨과 행복을 이어갈 것이다. ■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자매 3명/장로 1명



**김윤정 자매**  
부산 스테이크  
구포 지부  
서울 선교부



**서주은 자매**  
부산 스테이크  
구포 지부  
서울 선교부



**윤태현 장로**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서울 선교부



**최윤영 자매**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서울 선교부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부산 스테이크**  
대신 지부 회장: 양성준(전임: 최종호)

**인천 스테이크**  
연수 와드 감독: 최준영(전임: 정윤현)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회장: Black 장로(전임: 안경일)  
태백 지부 회장: 고현직(전임: 이우영)

**대전 스테이크**  
논산 지부 회장: 석동진(전임: 김남형)

**창원 스테이크**  
마산 와드 감독: 장용상(전임: 권대업)  
진주 와드 감독: 도재왕(전임: 이경희)